

무주군, 우수 천마 종균 생산 최선

올해 춘기 12만병 공급량 목표... 4월중 작목반·농협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천마 주산지 무주군이 2022년 천마 재배 농가를 위해 우수한 천마 종균을 자체 생산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천마종균배양센터에서는 올해 춘기 천마종균 공급량인 12만병을 목표로 우수한 종균 생산에 중점을 두고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천마 종균 배양센터.

지난 2011년 설립된 천마종균배양센터는 천마종균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까지 관내 천마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86만7천여 병을 공급한 바 있다.

천마종균은 다른 버섯균에 비해 배양기간이 2~3개월로 길고 배양환경에 민감함에 따라 공기질 등 배양조건을 스마트 시설로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오는 4월중 작목반과 농협을 통해 지난해 주문을 신청 완료한 무주군내 농가에 한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 이

장원 팀장은 "어느 때 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수한 천마종균을 자체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농가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마는 원목 + 종균 + 자마 + 토질 + 기후적 조건 등이 맞아야 재배가 가능한 작물로써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100%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로 웰빙 약용작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뇌출혈, 뇌졸중, 우울증, 치매 등 뇌질환 계통의 질병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근로장학생 장학증서 수료식 개최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대학생 162명 실무경험 쌓아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장영수)은 23일 군민회관에서 2022년 근로장학생 장학증서 수료식을 개최했다.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은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1달 여 기간 내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2022년 근로장학생 사업'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당초 모집인원은 100명이었으나 160명이 접수하는 등 호응이 높아 특별히 기간 내 접수한 162명 전원을 근로장학생으로 선발해 각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행정업무 보조와 아동 학습지도,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2022년 근로장학생 사업은 코로나19로 겨울방학 중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학업 중에는 쉽게 쌓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의료지원과 감염병대응팀에서 근로활동을 한 김현수(23) 학생은 "코로나19 방역 지원 근무를 하게 돼 PCR 검사 응대, 신속항원검사 안내 등 업무를 맡아 한 달간 일을 했는데, 대학생활을 할 때에는 매일 수업을 듣고 과제만 하다가 이렇게 평소 접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돼 특별한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서 일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 대화법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 뜻깊었고, 다음에 또 근로장학생 사업을 실시한다면 꼭 다시 참여해 또 다른 경험을 쌓고 싶다"고 전했다.

장영수 이사장은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한 한 달여 간의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 장수군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홍삼축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수상

'축제경제 부문' 대상

진안군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제10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축제경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시상식은 2019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이며 전라북도 내에서는 '축제경제 부문'에서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군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대상 시상식이다.

이는 축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각 분야의 시민단체와 축제 전문가들이 모여 마련한 것이다.

진안홍삼축제는 대한민국 유일 홍삼 특구의 고장인 진안에서 홍삼을 테마로 여는 전국 유일의 축제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온라인 축제를 개최해 참여형·시청형 프로그램과



'진안홍삼축제'가 제10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축제경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공모전 및 이벤트 등 다양한 19개 프로그램과 함께 참여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 속에서 군민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개최된 진안홍

삼축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기쁘고, 축제를 준비해주신 진안홍삼축제 추진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진안홍삼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지하수 영향 조사

겨울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이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 일제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 가뭄에 적극 대응하고 선제적 용수 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무주군은 현재 농업용 관정 실태와 지하수 영향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농업용 저수지 66곳과 농업용 관정 185곳으로 저수지 수위관리 상태와 관정의 모터펌프 상태 등 작동유·무, 발 기반시설(관수시설) 등을

점검·보수 중이다. 또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양수기와 송수호스 등의 한해대비 정비도 점검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 양정배 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폐공 조치하는 등 지하수 공공관리 체계를 확실히 해 오염원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며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농작물 피해 또한 걱정이 되는 만큼 관정의 양수능력 검사와 철저한 후속조치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

장수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택 및 단독 창고, 축

사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사업자로 총 사업비 13억 9700만 원을 투입해 319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50동의 지붕개량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당 최대 352만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전액, 지붕개량비는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가구당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2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적조사를 실시해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지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주민중심 마을복지체계 구축 위한 공공위크숍

진안군은 23일 신약초타운 강당에서 주민중심 마을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 위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위크숍에는 읍·면장을 비롯한 각 읍·면 맞춤형 복지담당과 담당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전문 강사의 교육을 듣고, 주민중심 마을복지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열린 토의의 장을 가졌다.

진안군은 2021년에 처음으로 진안읍, 용담면, 백운면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중심 마을복지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년도에는 11개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중심 마을복지사업은 마을별 특수성을 반영한 소규모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선정해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마을복지사업 전 지역 확대를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마을복지추진단을 대상으로 총 14차례의 위크숍과 결과 보고회를 진행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장수군은 지난해 이어 보건진료원과 보건지소·진료소에서 50세 이상 취약계층과 60세 이상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으로 고령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고 극심한 통증과 치료 후에도 신경통이 나타날 수 있어 예방접종이 중요하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10~15만 원으로 접대비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수군은 예방접종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수군 조례'를 제정해 접대비를 지원하고 있다.

50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60세(62년생) 이상은 접종 비용의 50%(4만2,50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접종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및 지원대상 증명서류를 지참해 장수군 보건진료원으로 방문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청년농업인 농업경영 애로사항 청취

진안군은 23일 청년농업인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및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농업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농업에서 청년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은 상호 소통하며 청년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8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해 젊은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고품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